

## 변환실성증 사례에서의 발성 양상 및 음성치료 보고

윤영선\*, 이은경, 백정환, 손영익, 추광철  
성균관대학교 의과대학 삼성서울병원 이비인후과학교실

**배경** : 변환실성증(conversion aphonia/dysphonia)은 심리적 요인으로 인해 기질적 문제 없이 기능적으로 발성장애를 보이는 경우로, 음성치료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 알려져 왔다. 하지만 실제 임상 예가 적어 상기 질환에 대해 진단적 기준 또는 음성 치료의 효과에 대한 보고가 적은 편이다. 본원에서는 지난 3년간(96/7-99/6) 총 5례만이 상기 진단을 받았고, 이들 중 4례에서 음성치료가 시행된 예가 있었다.

**목적** : 변환실성증의 발성 양상과 감별기준, 음성치료의 증재 방법 및 효과를 사례를 통해 보고하고자 하였다.

**대상 및 방법** : 사례 환자는 45세의 직업여성으로서, 말할 때 숨이 차고 쉼소리나 난다고 호소하고, 증상의 지속기간은 2년이라 하였다. 평가시 심리적인 요인을 확인하였고, 외전형 경련성발성장애에 대한 감별도 요구되었다. 음성치료는 주 1회씩 6회기가 진행되었고, 변환실성증의 증상을 줄이는 직접 또는 간접적인 치료 방법을 적용하였다. 치료 전후의 목소리를 주관적, 객관적인 분석을 통해 비교해 보았으며, 치료회기가 증가함에 따라 이상발성의 출현 빈도 및 환자 스스로의 증재 정도를 확인하였다.

**결과** : 음성치료 후 이상발성의 출현 빈도가 현저히 감소하였으며, jitter, shimmer, 성문하압, 평균호기류율의 감소를 보이는 안정된 발성을 하였고, 최대발성지속시간과 말속도는 증가함을 보였다. 또한 음성치료 종결 후 1개월째에 재평가를 하였을 때 환자는 정상적인 목소리를 유지하였고, 간혹 쉼소리가 출현할 경우라도 자신의 목소리를 모니터링하여 스스로 증재가 가능하다고 하였다.

**결론** : 변환실성증으로 감별을 하기 위해서는 주/객관적인 음성 분석과 함께 언어임상가의 충분한 문진이 필요하였다. 음성치료는 환자 개인의 상태를 고려하여, 증상에 대한 직접적인 치료와 심리적인 문제에 대한 상담 등을 병행하여, 환자 스스로 증재가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효과적이었다.